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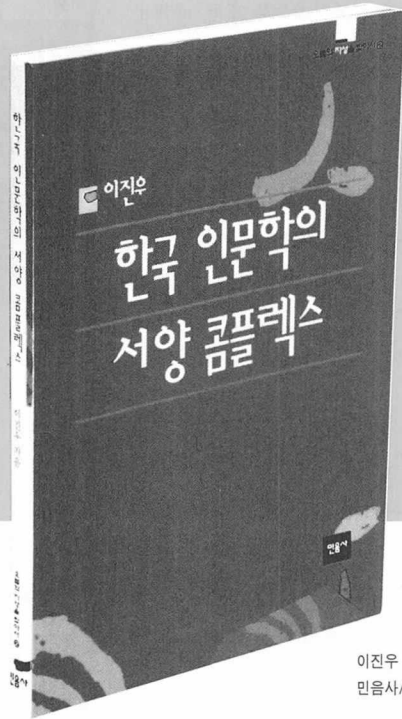
여전히 서양콤플렉스가 두려운 포스트모더니스트

이진우 지음 《한국 인문학의 서양콤플렉스》를 읽고

학문의 보편성, 세계화시대의 개방성에
이어 최근 한국인으로서 자기성찰을
슬며시 드러내는 것은 미봉적 구색맞추기에
다름아니다. 그는 여전히 특수성의 고민이
체화된 바 없는 담론의 보편주의자에
머문다. 우리의 학문 상황에서 노자와
하이데거, 다산과 칸트를 읽는 것이
왜 다르며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에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른 채하고도 사회철학자를
자칭하는가.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스트
철학자'란 그런가.

이진우 교수의 성취와 장점이 적지 않은 데다,
칭탁 받은 사정도 있으니 서평을 생략하고 몇몇
테마에 한정해 그를 소략히 비판한다. 이 교수는
우리 학문의 위기가 우리 근현대사의 특이성에
그 연원을 둔다는 점을 인정하되, 오히려 그 연
원에서 '문화적 조형력'과 '다원주의적 생산성'
을 읽어내자고 한다. 원칙상 좋은 제안이다. 그러
나 그는 여전히 학문의 보편성과 학문지형의 특
수성을 제대로 가려주지 않는다.

“이제는 잊어야 한다. 우리의 역사가 단절되
고 전통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뒤늦게
《친일인명사전》이 화제가 되는 것처럼 망각의
슬기는 낫뜨거운 기억과 철저한 반성 뒤에서야
자연히 생겨나는 법이다. 반성의 이후를 내다보
는 그의 명찰(明察)에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도
문제지만, 반성의 문턱조차 숨가빠하는 우리 학
계의 지배구조는 왜 건드리지 않는가. 심지어 건
드리는 시도를 폄하하고 왜 한결같이 주류만을
쫓는가. 그는 근자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체스
처를 내비치지만 내게 그것은 '어설픈 물타기'
로 보인다.



이진우 지음
민음사/A5신/238면/8000원

학문의 보편성, 세계화 시대의 개방성에 이어
최근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성찰을 슬며시 드러
내는 것은 내게 미봉적 구색 맞추기에 다름 아니
다. 그는 여전히 특수성의 고민이 체화된 바 없는
담론의 보편주의자, 혹은 기껏해야 월러스틴이
말한 '반유럽 중심의 유럽중심주의자(내재적 발
전문자)', 혹은 손자(孫子)가 말한 '반간(反間)'
의 범위에 머문다. “내가 포스트모더니스트인 까
닭은 서양 이성에 대한 자기반성을 기회 삼아 우
리 사유의 전통으로부터 새로운 이성의 가능성
을 탐색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자
신의 본색을 홀리고 다닌다.

나도 몇 번 충고했지만 이 교수는 여전히 익명
의 두루뭇수리 비판을 영악하게 계속한다. 한가
해지면 이 '영악'에 대해서 긴 글을 쓰겠지만 이
책에서도 그는 영락없이 유럽에서 파견나온 학
문의 고문관이다. 누구를 익명으로 누르고 누구
를 거명하는가 하는 문제는, 특히 인문학의 글쓰
기에서 예사의 것이 아니다. 가령, 그는 여기저기
내 글을 거의 그대로 옮기며 비판하지만 막상 논
쟁이 벌어지면 '김영민 교수를 의도하지 않았'
단다. 그의 책 《이성은 죽었는가》(1998)의 참고도
서 수백권 중 국내인의 것은 강영안 교수의 것
한권 뿐이다. “노자를 읽으면 어떻게 하이데거를
읽으면 어떠한가”라고? - 도대체 후안무치다.

나도 훈화는 질색이니 이 점은 제쳐두자. 의당

우리는 노자도 읽고 하이데거도 읽어야 하겠지
만 우리의 학문상황에서 노자와 하이데거, 다산
과 칸트를 읽는 것이 왜 다르며, 그 차이를 규명
하는 것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모른 채하고도 사
회철학자를 자칭하는가. 이른바 '포스트모더니
스트 철학자'란 그런가.

그는 “서양과의 부정적 대립을 통해 우리 것
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우리 것을 내세우지 못하
는 것은 그 폐쇄성 때문에 더욱 문제”라면서, 이
것도 '서양 콤플렉스'라고 못박는다. 나는 이 비
판에 열낼 일은 없지만 줄지에 서양 콤플렉스를
뒤집어 쓰게 된 동료들을 위해서 한마디. 이것은
그야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
이다. 이처럼 투박한 것은 오로지 지면이 작은
탓. “나 역시도 서양 콤플렉스를 극복하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보편성을 모시고
다니는 자칭 포스트모더니스트 사회철학자인 그
도 서양 콤플렉스가 두려운가.

김영민

전주 한일대학 인문사회과학부 부교수. 저서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
학의 글쓰기》, 《진리·일리·우리》 외